

## 더 안전한 대한민국!!

- 안전사회위원회 경찰·소방·해경 안전분야 최고전문가 영입
- 순직 소방관에 대한 묵념, 안타까운 국민 희생 더 이상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산하 안전사회위원회(공동위원장 오영환, 임호선, 황운하)는 11일(화) 10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주관으로 경찰, 소방, 해경분야 안전전문가 영입 행사를 가졌다.

이날 안전사회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임명장을 받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신열우 전 소방청장, 조종묵 전 소방청장은 각각 경찰, 소방분야 최고위급 인사다. 이 외에도 김재규 전 전남지방경찰청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진정무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김동현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박청웅 전 광주전남소방본부장, 김충규 전 남해지방해경청장이 영입됐다.

이날 인재영입을 주도한 송영길 대표는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할 최고의 안전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말했다.

안전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환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환경, 기후 위기, 재난, 해양 영토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사이버 위협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을 뛰던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사고들이 안타깝고, 비극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더 이상 그 누구도 아픔으로, ‘희생’ 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았으면 한다” 며 안전공약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전 경찰청장이었던 민갑룡 상임고문은 “선진사회일수록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는 만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초대 그리고 전 소방청장을 지낸 조종묵, 신열우 상임고문은 “일련의 대형화재로부터 국민의 희생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안전사회위원회는 경찰 출신 임호선·황운하 의원, 소방 출신 오영환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생치안본부, 재난안전본부, 해양안전본부 총 3개 본부 및 17개 시도별 본부장과 부분부장을 둔 전국 조직으로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찰, 소방, 해경분야 안전 전문가 네트워크인 안전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더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안전공약 발굴과 안전 캠페인, 이재명 후보 지지세 확대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더 이상의 안타까운 국민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최근 순직하신 세 분의 소방관에 대해 묵념을 드렸다. 끝.

## [첨부1] 전문가 영입 명단

민갑룡 전 경찰청장

신열우 전 소방청장

조종목 전 소방청장

김재규 전 전남지방경찰청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진정무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김동현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박청웅 전 광주전남소방본부장

김충규 전 남해지방해경청장

## [첨부2] 현장사진

